

# 광주서 호남권 최대 '미래산업 엑스포' 열린다

29일~7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모빌리티 등 300개사 500부스 규모 제품 전시·세미나·수출상담회 마련 채용박람회... 드론·오토캠핑 체험



광주지역 대표산업인 모빌리티, 가전 등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산업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모빌리티·뿌리산업·가전로봇 분야 미래산업전시회인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오는 29일부터 7월1일까지 사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한다.

특히 그린카전시회, 뿌리산업전시회, IoT가전로봇박람회 등 그동안 개별전시회로 열던 것을, 올해부터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로 통합 개최해 명실상부 호남지역 최대 산업전시회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시품목은 완성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재부품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1대

대 뿌리기술, 가전, 드론, 로봇 등으로 300개사 500부스 규모다. 관련 제품과 기술 전시, 기술세미나,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1 수출상담회를 갖는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 70여개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페어도 열린다.

디알텍, 은혜기업, 현대하이텍,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하는 광주전남합동일자리박람회도 동시 개최된다. 현장을 방문한 구직자는 채용 면접, 취업 컨설팅,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는 로봇과학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1000여명이 참가해 로봇퀵링, 로봇씨름, 로봇장작 등 총 6개 종목에서 열린 경합을 펼치는 빛고을로봇페스티벌도 열린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

티, 신성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업체의 차량을 직접 시승하는 기회와 드론 체험이 가능한 상상드론 체험존, 최신 트렌드의 캠핑·레저용품 선보이는 오토캠핑레저존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용승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광주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이 판로확대와 수익증대 등 풍족한 성과를 얻어가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가기업과 광주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본격 출시

기아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기본 모델을 19일 출시하고,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EV9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번째 모델로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1km까지 주행 가능하다.

기본 모델 트림은 에어와 어스 2가지로 각 트림에서 2WD와 4WD 구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에어 트림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과 핵심 편의 사양을 갖췄다.

어스 트림은 1열 릴렉션 콤포트 시트를

비롯해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스티어링 휠 엠블럼 라이트, 듀얼 칼라 엠비언트 라이트,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기본 탑재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으로 △에어 2WD 7337만원 △에어 4WD 7685만원 △어스 2WD 7816만원 △어스 4WD 8163만원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TP '지역 주력산업기업지원사업' 추진

6개 사업·26개 프로그램 지원 오늘 설명회... 30일까지 접수

광주테크노파크는 '2023년 광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선 8기를 맞아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산업, 스마트홈부품산업,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등 3대 주력(주축)산업으로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3개 주력(주축)산업과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비R&D)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가 지원한다. 총 11억3000만원의 지원규모로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재)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재)광주테크노파크 산업기술총괄센터,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6개 주관기관에서 6개 사업, 26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지원사업에서는 지역기업의 수혜 희망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제품고급화, 인증,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 RIPS) 또는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i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지역산업 종합정보시스템(RIP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후 7월6일까지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테크노파크는 6개 주관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19일 광주TP 본부동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관심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규모·분야 등에 대해 안내하고, 각 주관기관에서는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상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집 원장은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지역기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지역 혁신기관들이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 '무더위쉼터' 운영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19일부터 8월31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32개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4시)에 운영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 후 매년 운영해온 무더위쉼터를 올해도 운영해 노년층 및 폭염취약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유동인구가 많

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객과 지역민의 호평을 얻고 있다. **최권범 기자**

### 제 1072회 나눔로또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 번호        |           |
|-------------------|------------------|-----------|
| 16 18 20 23 32 43 | 27               |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       |
| 1등                | 6개 숫자 일치         | 21억7500만원 |
| 2등                |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 4677만원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51만원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만원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원     |

## 호남권 최초 '빛공해 검사기관' 개소

한국광기술원, 현판식 가져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

호남권 최초의 빛공해 검사기관이 문을 열었다.

18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이 최근 한국광기술원 LED조명실증센터에서 빛공해 검사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수영 환경기반연구부장, 환경부이예슬환경사무관 등 관련 외부 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전문 기술 인력, 장비, 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2022년 6월2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빛

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현재 한국광기술원을 포함해 키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아이라이트, ㈜이즈소프트 등 5곳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광기술원은 △지자체의 빛공해 검사 업무 대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빛공해 민원 지역에 대한 측정 등을 지원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광주시를 포함한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 중이다. **곽지혜 기자**

## 금감원 Q&A

**문** 최근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이상)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점포가 점차 축소되고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지자체 등은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금융교육 이수 후에도 어르신들은 조

## 어르신 모바일 금융교육앱 활용하세요

작실수에 따른 착오송금 등을 걱정하여 여전히 모바일 금융앱 이용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모바일 금융거래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용 모바일 금융앱인 '스마트시니어'를 공동 개발했다. 이제부터 스마트시니어 금융앱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도록 하자.

**답** 첫째, 화면 및 조작 방식을 실제 산업은행의 모바일 금융앱과 동일

하게 구성하여 이제금액, 받는사람 정보 등을 자유로이 입력하고 동 내용이 거래내역에 반영되도록 제작하여 현실감을 높였다.

둘째, 가상 모바일 금융앱의 화면을 캡처하여 잔고증명 사기 등에 악용할 수 없게 안전장치를 갖추었다. 예를 들어 앱상단에 '교육용 화면'임을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배경에 '교육용 모의거래' 워터마크를 삽입하였고, 금액표시 앞에 모의금액이라고 표기하였으며, 모의 계좌금액 설

정액을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시니어 금융앱 사용정보를 인터넷서버가 아닌 사용자 핸드폰에 직접 저장되도록 설계하여 개인정보노출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셋째, 어르신들이 휴대폰 이용에 서툴러도 손쉽게 스마트시니어 금융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직관적으로 따라하면서 조작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담은 이용안내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니어 금융앱은 누구나 자유로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배포(애플스토어는 심사 준비중)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회·이체 등 제한된 연습만 가능하나, 앞으로 인증서 발급, 계좌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모바일 금융앱의 작동방식, 디자인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이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연습용 금융앱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모바일 금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